

전주시-4개 대학, 한지산업 활성화 '맞손'

시, 전북대·전주대·전주교대·우석대와 협약 체결 대학행정 추진시 한지 활용도 높이고 연구활동 노력

세계가 주목한 전주한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종교계, 박물관, 금융권에 이어 전북지역 대학들도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우영 전주교육대 총장, 이호인 전주대 총장, 장영달 우석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전통한지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와 4개 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의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협약 참여 대학들은 한지문화와 공동발전과 공공기관의 전통한지 소비 동참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대 등 4개 대학은 대학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 전통한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한지 분야의 연구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각 대학에서 향후 추진될 한지작품 전시와 한지관련 행사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전주 전통한지 보존을 위해 명맥을 이어온 한지 장인들을 전주한지장(韓紙匠)으로 선정, 예우하고 한지의 원료인 다펀 재배단지 조성, 전주한지 생산시설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또 전주한지산업 산업화를 위해 국내 4대종교, 국립전주박물관, 신협중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해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4대 종교 대표와 전주한지로 중요한 종교문서를 복원하고, 임명장·표창장·세례증·법위증·탑본체첩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한지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나아가, 시는 한지 세계화를 위해 바티칸 비밀문서 복본 등 고서복본사업과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사업,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낙종이 인형 제작사업 등을 통해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왔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대학교육에서도 전주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우영 전주교육대 총장, 이호인 전주대 총장, 장영달 우석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전통한지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와 4개 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통한지의 보존과 계승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고 지역특성과 전통을 소중하게 살려나가는 데에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나가게 되어 의미 있는 협약이 됐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슬로시티 철학·가치 확산 이끈다

전주시, 2019 슬로지기 발대식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를 이웃에게 알릴 전주슬로지기 공동체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의 확산을 이끌고 슬로라이프를 추구하는 지지계층 확보를 위한 '2019년 전주 슬로지기(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슬로지기서포터즈는 '2019 슬로지기 프로그램 발굴·운영 사업'에 선정된 5개 공동체 대표와 회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5개 공동체 대표와 회원, 전주 슬로시티 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지기 대표 선서와 함께 장희정 한국슬로시티본부 사무총장의 '슬로시티 전주의 의

미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한 인식 교육도 진행됐다.

전주시 슬로지기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을 전주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슬로지기 공동체 대표는 "세계 최초 도상형 슬로시티 전주의 슬로지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슬로시티 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지지할 수 있도록 슬로지기가 기량을 합쳐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며, "전주시도 슬로지기 활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50+ 세대 은퇴 준비 돕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

전주시,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전주시가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50+ 세대의 인생 후반기 설계를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시는 '2019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50+세대를 위한 특성과 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인 인생후반기 50+ 플랫폼 구축을 통해 50+ 세대들의 은퇴 후 준비를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퇴직을

앞둔 50+세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생후반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50+세대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일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은퇴를 앞둔 50+ 세대들의 막연한 불안감 대신 인생후반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50+세대들에게 용기를 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올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튜터' 모집

4월 8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이 2019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멘토링 사업의 멘토와 멘티 간의 만남을 연결하고 지원할 튜터를 모집한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2019 인생나눔교실'에 함께할 튜터를 4월 8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튜터'는 4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인문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조정하고 현장 모니터링, 그룹별 소모임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컨설팅 진행 시 소정의 사례비와 역량강화교육이 지원된다.

자격 조건은 사업의 매개 인력으로써 호남권역(전북, 전남, 광주)에

거주하며 인문사회와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중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 또는 유사 사업 5년 이상의 경력자다.

2019 인생나눔교실은 11월까지 호남권 지역에 있는 군부대, 중학교, 지역 이동센터, 보호관찰소, 노인복지관 등 50여개 멘티 기관을 방문해 700여 차례의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의 인생나눔교실은 올해 3차 운영으로 매년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운영을 인정받아 사업비가 5억으로 증액됐다.

지원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life_honam@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063-230-7443)에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혼불 읽으며 함께 걸어요'

전주한옥마을 최명희길 시, 명품 골목길로 조성

전주한옥마을 최명희길 일대가 한옥의 맛을 살리고 불법주차 없는 골목길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명희길 약 150m 구간에 남천 300주를 식재한 대형화분 40개를 비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최명희길의 명칭에 걸맞게 화분과 벤치에 최명희 작가의 대표작인 '혼불'에 나오는 글귀를 넣어 방문객들이 길을 걸으며 글귀를 읽거나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간 전주한옥마을 최명희길 주변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여행객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해왔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주민과 상가를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취지를 설명하고 몇몇 반대 상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동의를 받아 명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명희길 약 150m 구간에 남천 300주를 식재한 대형화분 40개를 비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품 골목길을 조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연말에도 최명희 길 생가터 앞길에 대형화분 40개를 배치하고 남천과 꽃배추 등 겨울화초 450주 식재하기도 했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골목길 투어를 통한 구석구석 한옥

마을의 맛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 전주한옥마을 11개 구간에서 차량이동을 통제하고 문화정터와 문화공원 등을 운영하는 등 여행객들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전북경찰청, 숙박업소 등 설치 여부 점검

전북경찰청이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을 위해 숙박업소 일제점검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숙박업소와 학교, 불철 행락지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자체단체·숙박업 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문 탐지장비 151대를 활용, 이날부터 지속적으로 합동점검 및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예인 단복방 불법촬영물 유통, 모델방 불법촬영 사건 등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불법촬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된다.

전북청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시·군·구·읍·면 단위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범죄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은 도내 주요 지역축제장소, 백화점, 휴게소, 공연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도내 숙박업소 1,475개 업소와 학교 등도 일제점검이 이뤄진다.

경찰은 올해 6월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시설·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검사할 권한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시설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김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최근들어 초소형·위장형 카메라의 구입이 손쉬워지면서 전북 도내에서도 불법촬영 성범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불법촬영은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EEZ 내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해경에 덤미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60t)와 B호(67t)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업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조사결과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 출력과 실제 기관 출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범를 위반한 중국어선들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후 담보금(각 3천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조심시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근무태도 문제' 동료 흉기 찌른 60대 징역형

말다툼 끝에 중국인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 국적의 60대가 함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61)씨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 군산시 미룡동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중국동포 B모(56)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뒤, 30여분 만에 지구대에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끈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함소심 재판부는 "당시 목격자들의 신속한 조사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게임핵 팔아 2억 채팅 30대 구속

불법 온라인 프로그램인 일명 '게임핵'을 팔아 수익원을 채팅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31)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FPS(인칭 슈팅) 게임 유저 3천400여명에게 게임핵을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판매책에 게임핵을 구매할 뒤, 직접 동영상 제작해 게임 관련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홍보했다.

이후, A씨는 게임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능별로 5천 원에서 2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훈 기자

서부신시가지 내 공한지

무료주차장 내일 시민 개방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효자동2가 1231-1,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조성, 오는 3월29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부신시가지는 전북지역 최대 상권 지역으로 인과와 차량이 몰리면서 불법주차로 포말을 앓고 있는데 이번 무료주차장 조성으로 조금이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완산구에서는 관내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26개소를 조성, 49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수시로 공한지 주차장을 정비해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했다.

완산구는 앞으로도 잡초와 각종 쓰레기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공한지를 조사해 무료주차장을 조성 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송천중고 '나눔의 숲 캠프'

송천중고등학교(원장 오연호)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나눔의 숲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나눔의 숲 캠프' 행사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개방치유가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획됐으며, 숲 체험형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숲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해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진행된 행사로 27일 송천중고등학교의 모범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 등 32여명이 참여했다.

/김영태 기자